

研究論文

# 이탁오의 논어학과 명말 새로운 경학의 등장\*

이 영 호\*\*

I. 문제 제기	<참고문헌>
II. 『논어평』의 경학적 특징	<국문요약>
III. 『논어평』의 사상사적 위상	

## I. 문제 제기

동아시아 유학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유학, 새로운 지식체계가 확립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새로운 경학이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유학사조였던 주자학, 양명학, 고증학, 실학, 고학이 항상 새로운 경학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유학사와 경학사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지식인들 대부분이 유학에서 자양분을 얻어 자기 사상의 근원으로 삼기에 새로운 유학을 연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유교의 경전에서 이념의 근간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그 새로운 유학의 정립에는 경전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이 그 배면에 항상 있어 왔고, 이것은 바로 새로운 경학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둘째로 새로운 유학, 새로운 지식 체계의 등장에는 필연적으로 기존

\* 이 논문은 2008년 9월 5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에서 <동아시아 傳統知와 學人>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며,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4).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한국경학 전공(lyh6896@yahoo.co.kr).

지식체계에 의한 강력한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중국과 조선의 금서와 이단에 관한 논쟁은 바로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예일 것이다. 때문에 신유학이 등장할 때 이를 주도하는 이는 기존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기 사상의 근원이 유가에 있음을 주장하고, 유가 경전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편다. 이른바 진근대 동아시아인의 탁고전통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거한다는 말은 유가의 경전을 해석, 즉 주석을 단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유학을 주창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가의 경전에 직접 주석을 달고서, 이 주석이야말로 성인(성인)의 본의를 가장 잘 파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주석 내용의 대부분은 거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유가의 경전에 주석을 달면서,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전의 언어를 개조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주희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경문을 고치거나 새로 창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하간 새로운 유학사상과 새로운 경학의 등장이 항상 맞물려 있기에 주자학, 고증학, 실학, 고학은 바로 주자학적 경학, 고증학적 경학, 실학적 경학, 고학적 경학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시각을 중국으로 한정하여 보면, 중국의 사상사와 경학사의 미묘한 틈새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명대의 양명학적 경학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 경학사를 조망한 비교적 이른 논의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경부총서(經部總敘)」에 보이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대 이후 2000년 동안 유학은 6번 바뀌었으나,<sup>1)</sup> 그 해석 방식을 놓고 말하자면 송학적 의리와 청학적 고증 두 가지이다.<sup>2)</sup>

여기서는 송학적 의리와 청학적 고증의 양측의 힘(頤頤)작용으로 중국경학사를 개괄하면서, 명대 경학에 대해서는 마음에 획득한 바를 중시하니, 그 폐단은 방자함(肆)에 있다고 하였다. 즉 「경부총서」에서는 명대 경학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나,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런데 이후에 중국과 일본에서 쓰인 중국경학사의 명대 경학 항목을 살펴보면, 그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1) 漢學, 魏晉學, 唐學, 宋學, 明學, 清學을 가리킨다.

2) 『四庫全書總目提要』, 「經部總敘」. “自漢京以後, 垂二千年, 儒者沿波, 學凡六變…要其歸宿, 則不過漢學宋學兩家互爲勝負.”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청말 금문경학자인 피석서(皮錫瑞, 1850~1908)는 『경학역사』에서 송대를 경학의 새로운 시대(經學變古時代), 명대를 경학이 쇠퇴한 시대(經學積衰時代), 청대를 경학이 되살아난 시대(經學復盛時代)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명대 경학의 쇠퇴 원인을 주자학과 경전 주석의 발췌본이라 할 수 있는 『사서오경대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른바 교과서적 성격의 주석본이 만들어지자 창조적 경전주석의 저술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논리이다. 이후 쓰인 마종곽(馬宗霍)의 『중국경학사』나 유사배(劉師培)의 『경학교과서』, 범문란(范文瀾, 1893~1969)의 『경학강연록』에서도 피석서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明人の 학문은 협애하여 오직 사서(사서대전을 가리킴)를 알 뿐이었다고 하였다.<sup>3)</sup>

한편 일본에서 쓰인 중국경학사의 명대 부분 서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본전 성지(本田成之, 1882~1945)는 『지나경학사론』에서 명대경학은 곧 『사서오경대전』이라 하였으며, 안정소태랑(安井小太郎)과 제교철차(諸橋徹次) 등이 저술한 『경학사』에서는 명대를 가리켜 중국 경학사상 가장 볼 것이 없는 시대라고 하였다.<sup>4)</sup>

최근에 출간된 경학사를 보면, 이러한 서술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장권재(章權才)는 『송명경학사』에서 명대 경학으로 『사서오경대전』과 왕양명의 「대학문(大學問)」을 들었으며, 오안남(吳雁南)은 『중국경학사』에서 양명으로 명대 경학을 설명하면서 이 시기 주요 경전 주석에 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쓰인 허도훈(許道勛)의 『중국경학사』에서는 명대 경학 부분을 아예 빼버렸다.<sup>5)</sup>

명대는 동아시아사상사에서 주자학에 필적하는 학문체계인 양명학이 출현한 시기이다. 그런데 위의 경학사의 서술대로라면 다른 시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존재했던 새로운 사상에 상응하는 경학적 현상이 왜 명대에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혹

3) 皮錫瑞, 『經學歷史』(臺灣: 藝文印書館, 民國63年); 馬宗霍, 『中國經學史』(臺灣: 商務印書館, 民國61年); 劉師培, 『經學教科書』(寧武南氏校版影印本); 范文瀾, 『經學講演錄』(中國: 社會科學出版社, 1979).

4) 本田成之, 『支那經學史論』(日本: 吉川弘文館, 1927); 安井小太郎·諸橋徹次, 『經學史』(日本: 松雲堂書店, 1933).

5) 章權才, 『宋明經學史』(中國: 廣東人民出版社, 1999); 吳雁南, 『中國經學史』(中國: 福建人民出版社, 2000); 許道勛, 『中國經學史』(中國: 人民出版社, 2006).

존재했었는데 위에 언급한 여러 종의 경학사에서 간과한 것인가? 만약 있었다면 이러한 경학의 특징과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학적 현상이 새로운 지식체계, 즉 신경학(新經學)이라 규정지을 만큼의 사상사적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의문들이 생겼다. 이러한 생각들을 지니고 명대 경학을 탐색하던 중, 필자의 눈에 들어온 책이 이탁오(李卓吾)가 지었다는 『사서평(四書評)』과 일본 학자 좌야공치(佐野公治)의 『사서학사의 연구』와 송천건이(松川健二)가 편찬한 『논어의 사상사』였다.<sup>6)</sup> 먼저 이탁오의 『사서평』을 일독해 보니, 종래 경학저술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두 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탁오를 위시한 명대 경학자들의 저술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의미의 부여가 있었다.

이에 위의 연구 성과에 도움을 받고 『사서평』 중에서 특히 『논어평』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탁오 경학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탁오의 경학이 신경학, 즉 새로운 경학체계로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경학체계로 작용했다 함은 첫째 사상사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경학체계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경학과 차별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둘째 그 경학적 내용이 이탁오 일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성, 즉 학파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내용을 엄두에 두고 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논어평』의 경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기로 한다.

## II. 『논어평』의 경학적 특징

『논어평』의 경학적 특징은 그 주석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어평』의 내용과 형식은 ‘새롭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른 시기의 경전주석과 차별상을 지니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그 차별상은 종래 경전주석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시대

6) 佐野公治, 『四書學史の研究』(日本: 創文社, 1988); 松川健二, 『論語の思想史』(日本: 汲古書店, 1994).

에서도 이러한 경학적 현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논어평』에 보이는 주석 내용의 새로운 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주석 내용

### 1) 성경과 성인에 대한 탈성화

한대에 이르러 유학이 국가이념이 된 이후, 그 중심서적인 오경은 성경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송대에 이르러서는 그 종수가 13종(十三經)에 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의 성경은 그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매우 특별한 지위를 지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성경의 저자(찬자)인 성인들 또한 세속적 영예와 더불어 유가적 도통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특히 명대에 이르면 이러한 성경들뿐 아니라 성경을 해설해 놓은 일부 주석서들조차 매우 존송받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유가 경전에 대한 성경화는 그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풀이해 놓은 많은 주석서(賢傳)들은 비록 내용을 달리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유가 경전을 성경이라는 전제하에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탁오는 기존의 이러한 관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유가 경전을 바라보았다. 『논어』, 「미자」편을 보면, 공자는 주나라의 여덟 명의 어진 선비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논어』, 「미자」 18장

“주나라에는 여덟 명의 어진 선비가 있었으니, 백달, 백관,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계수, 계와 등이었다.”<sup>7)</sup>

이 경문에 대하여 이탁오는 『논어평』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논어평』, 「미자」 18장

총괄하여 비평한다. 이 「미자(微子)」 한 편의 경문을 읽으면, 마치 패관소설, 야사, 각국의 역사서를 읽는 듯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한다. 이 또한 경전 안의 사서(史書)로다.<sup>8)</sup>

7) 『논어』, 「미자」 18장. “周有八士, 伯達, 伯适, 仲突, 仲忽, 叔夜, 叔夏, 季隨, 季驕.”

유가경전은 한대 이후 여타의 서적과 대별되는 독자적 지위를 점유하게 되는데, 그 실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신성화이다. 유가경전에 대한 이러한 신성성의 부여는 마침내 청대에 이르러서 전시대 중국 서적을 총망라하여 분류함에 독립된 단위로 분류하게끔 만들었고, 여타 분류의 상위에 위치하게끔 하였다. 이른바 경사자집에서 정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탁오는 위의 평어에서 보다시피 경전의 문자를 패관소설, 또는 사서(史書)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였다.<sup>9)</sup> 이탁오의 이러한 사유는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그는 경전에 주석을 달 때, 방비(旁批)와 미비(眉批)를 통해 경문을 문예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비평하거나, 엄숙한 경문의 언어를 희화화하곤 하였다.<sup>10)</sup>

이처럼 경을 역사서, 또는 문학서와 동일하게 여기거나 경문을 희화화하는 것은 경전에 씌어져 있던 신성성의 그물을 거두어 냈고 동시에 경의 주인공인 성인에 대한 평가도 달리하게 만들었다.

공자는 사마천에 의하여 제후의 지위를 부여받고,<sup>11)</sup> 당 현종에 의하여 739년에 문선왕(文宣王)의 시호를 추증받았다. 이로써 공자는 정치적으로 왕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sup>12)</sup> 그런데 송대의 주자에 이르러 공자는 도통의 정점에 선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다.<sup>13)</sup> 즉 송대에 오면 공자는 정치적 방면과 사상사적 측면에서 공히 최고의 위치에 선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당송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시기 공자의 형상은 신성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탁오는 『논어평』에서 공자에게 덧씌워진 신성한 인간의 형상을 벗기고, 인간 공자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논어평』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펴려고 각국을 주유하며 모진 고생을 하던 공자는 만년

8) 『논어평』, 「미자」 18장. “總批 讀此一篇, 如讀稗官小說, 野史, 國乘, 令人不寐. 其亦經中之史乎?”

9) 장학성(章學誠)의 육경개사설(六經皆史說)의 남상(濫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余英時, 「章學誠의 六經皆史說」,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하)』(창비, 1985) 참조.

10) 『논어』, 「양화」 19장. “子曰: ‘予欲無言’ (旁批: **그러고도 말씀하시네又說**).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旁批: **둔한 놈鈍漢**).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11) 사마천은 공자를 제후들의 일대기를 다룬 세가에 편입시키고서 공자세가를 저술하였다.

12) 이에 대해서는 淺野裕一, 『孔子神話』(岩波書店, 1997) 참조.

13)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自是以來, 聖聖相承, 若成湯文武之爲君, 皐陶伊傅周召之爲臣, 既皆以此, 而接夫道統之傳. 若吾夫子, 則雖不得其位, 而所以繼往聖開來學, 其功, 反有賢於堯舜者”라고 하여, 유가의 도통사에서 공자의 업적이 고대 성왕들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魯哀公 11년)에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때 노나라의 악관이 공자에게 음악을 배워서 당시 노나라의 궁중음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르게 되었다고 한다.<sup>14)</sup> 이 경문은 전통적으로 노나라의 음악을 바로잡은 공자의 치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탁오는 이 경문을 공자의 처지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논어평』, 「자한」 14장

<노나라의> 아(雅)와 송(頌)은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중니는 제자리를 잡지 못함이 심하다.<sup>15)</sup>

노나라의 음악을 바로잡은 공자의 업적은 이탁오에게 관심사가 아니다. 이탁오의 시선은 그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변인으로 서성이는 공자에 집중되어 있다. 종래 많은 주석가들은 공자를 소왕(素王)이라 평하며 공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상을 펴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성인의 학문을 계승하여 후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유학을 정초한(繼往聖開來學)의 불후의 공을 세웠기에 여한없는 생을 살아간 것으로 묘사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탁오가 보기에 공자는 그렇게 자신의 생을 여한없이 살다간 현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상을 펴고자 노력하였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좌절하게 되었을 때, 안타까움에 애를 끓이는 인간, 이것이 이탁오가 파악한 공자였다. 그러기에 이탁오가 보기에 공자는 완성자인 성자가 아니라 실패를 거듭 하고 때로 조급해하는 인간이었다.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만약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상자에 넣어 보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장사치를 찾아서 파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니, 공자는 “팔고 말고! 팔고 말고! 나는 장사치를 기다리고 있느니라”라고 대답한 문답이 『논어』에 나온다.<sup>16)</sup> 이 문답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보면, 공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기회를 줄 위정자를 담담하게 기다리며 초조하게 찾지 않는 것으

14) 『논어』, 「자한」 14장. “子曰: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15) 『논어평』, 「자한」 14장. “雅頌得其所, 仲尼不得其所, 極矣.”

16) 『논어』, 「자한」 12장.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匱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

로 묘사하고 있다.<sup>17)</sup> 그렇지만 이탁오는 이 구절에서 현실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여 애타는 인간 공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경문 이야말로 공자가 한 세상 살아감의 다급함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sup>18)</sup>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의 이상은 실현될 기미가 없음에 애태우는 공자. 이탁오의 이러한 공자상은 종래 『논어』에서 파악된 공자의 면모를 매우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탁오의 공자는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공자가 아니라,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사의 애환에 울고 웃는 인간 공자이다.<sup>19)</sup> 그러하기에 이탁오의 눈에는 제자들과 화락하게 담소를 나누는 공자의 형상도 때로 세상에 초조해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였다.<sup>20)</sup> 그리고 공자 또한 권세와 이익에 초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sup>21)</sup>

성경과 공자를 바라보는 이탁오의 이러한 시각은, 그 탈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사상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탁오 이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 17) 『논어집주』, 「자한」 12장의 주자주. “子貢以孔子有道不仕, 故設此二端以問也. 孔子言固當賣之, 但當待賈, 而不當求之耳.”
- 18) 『논어평』, 「자한」 12장. “이 경문은 성현들이 모두 한 세상 살아감의 급박함을 보인 것이니, 자공이 훌륭한 위정자를 구하고 공자가 이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아니다. ‘팔고 말고 팔고 말고’라는 구절을 잘 새겨보면 말씀의 속뜻이 저절로 드러난다(此見聖賢都急于渡世, 非子貢求而孔子待也, 但玩沽之哉! 沽之哉, 口角自見).”
- 19) 『논어평』, 「향당」 제7장. “대중들과 동일한 모습, 바로 이것이 성인의 모습(與大眾亦只一樣, 所以爲聖人).”
- 20) 『논어평』, 「선진」 25장. “네 제자가 피시고 앉았으니, 영재들이 많기도 하다. 이를 보신 공자, 문득 당대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상념이 일어났다. 그런데 때마침 자로의 말에 경세(經世)의 의지가 분명하니 공자께서 희색이 만연하여, 연이어 세 제자들에게 물으셨으니, 세상에 쓰이고자 함을 급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공자께서 비록 이러한 의지와 심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답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종래의 이 구절을 읽는 자들은 것처럼 소경이었던가? 그들은 다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공자께서杏壇위에서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도다**(四子侍坐, 英才濟濟, 孔子勃然動當世之想, 子路言之鑿鑿, 夫子色喜, 所以連問三子, 其急于用世, 可知矣. …夫子雖不直言所以, 玩其答語, 自是了然. 何從來說此書者之贖贖也. 特爲拈出, 想夫子亦含笑于杏壇之上矣).”
- 21) 『道古錄』 권1. “무릇 성인도 사람일 뿐이다. 높고 멀리 날아올라 인간세계를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입과 먹지 않을 수 없으며 곡식 낱알과 지푸라기 웃조차 끊고서 자기 혼자 황야로 도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라 해도 권세와 이익의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조구찌 유조(저)/김용천(역), 『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동과서, 1999), 206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성경과 성인에 대한 탈성화는 필연적으로 이전과는 대별되는 주석 내용과 형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과 그 중심인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자 자연스레 이를 해설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감성적 비평의 주석을 그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2) 감성적 비평

경전의 주석은 훈고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의리를 중심에 두었거나, 이 둘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 보니 주석의 내용은 고증적 재료의 집적이나 자신의 이념을 경문에 대입시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경전의 내용을 학문적 탐구의 대상 또는 자기 사상의 검증의 장으로 활용하는 태도로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경과 그 경의 주석자와의 사이에는 객관적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경의 주석자가 경에 대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였을 때, 그 학문적 탐구와 자기 주장의 엄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탁오는 종래의 이러한 경전주석의 방식을 탈피하여, 경과 자신의 객관적 거리를 거의 없애고서 주관적 감상으로 경을 해설하였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경과 성인에 대한 탈성화의 의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을 하나의 책, 성인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았기에 경의 주인공도 자신의 감성에 직접 와 닿게 이해하였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자유롭게 감성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몇 가지 예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논어』, 「학이」 9장

증자(曾子) : “아버이 상(喪)을 당하여서는 예를 다하며, 먼 조상의 제사에는 추모의 마음을 극진히 한다면, 백성들은 인후(仁厚)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sup>22)</sup>

『논어평』, 「학이」 9장

‘돌아가게 될 것이다[歸]’란 한 글자 오묘하도다. 우리는 이에서 인후한 도덕 심야말로 인간의 근원적 고향임을 볼 수 있다. 마음 각박한 저 소인들, 모두가 타향을 떠도는 인간들이로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 마음 아픈 일인가!<sup>23)</sup>

22) 『논어』, 「학이」 9장.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위의 경문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보면, ‘신중(愼終)’, ‘추원(追遠)’, ‘민덕귀후(民德歸厚)’에 대하여 차례대로 평이하게 그 의미만을 풀이하였다.<sup>24)</sup> 즉 의미의 정확한 풀이와 전달에 치중하고, 주관적 감상은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탁오의 평을 보면, 의미에 대한 풀이는 전혀 없고, 주관적 감상만으로 주석을 달았다. 그는 종래 백성들의 심성이 모두 둔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풀이된 ‘귀(歸)’자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다. 이탁오의 심성에 이 경문의 ‘귀’자는 인간의 근원적 고향인 인후한 도덕심으로 회귀하는 의미로 와 닿았다. 흡사 연어 떼가 모천으로 회귀하듯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구초심을 지니는데, 이 경문의 ‘귀’자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원초적 회귀의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회귀의식을 잃어버린 인간—이탁오는 이러한 인간을 소인이라 보았다—은 영원한 실향민으로, 가련하고도 애닦은 존재들인 것이다. 이탁오는 자신의 이러한 감성적 『논어』 읽기를 그대로 문자화하여, “마음 각박한 저 소인들, 모두가 타향을 떠도는 인간들이로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 마음 아픈 일인가!”라고 하였다.

이탁오의 이러한 『논어』 읽기는 『논어평』 곳곳에서 보인다. 당대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노나라 대부에 관해서 언급할 때, “울고 싶구나, 계 씨여!”라고 하거나,<sup>25)</sup> “사람들을 죽여 선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계강자 그대부터 죽어야 할 것이다”<sup>26)</sup>라고 하면서 격한 감정을 그대로 『논어평』의 문면에 드러내었다. 이 밖에도 서글프거나 개탄스러운 마음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곤 하였다.<sup>27)</sup> 『논어』에 관한 이러한 감성적 비평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실로 이탁오와 그의 영향하에 있었던 일부 학인들에게서만 보이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탈성화와 감성적 『논어』 읽기는 이탁오 논어학의 중요한 표지이지만,

23) 『논어평』, 「학이」 9장. “‘歸’字妙, 可見‘厚’是故鄉. 今之刻薄小人, 俱是流落他鄉之人. 可憐, 可痛!”

24) 『논어집주』, 「학이」 9장의 주자주. “愼終者, 喪盡其禮, 追遠者, 祭盡其誠, 民德歸厚, 謂下民化之, 其德亦歸於厚. 蓋終者, 人之所易忽也, 而能謹之. 遠者, 人之所易忘也, 而能追之, 厚之道也. 故以此自爲, 則己之德厚, 下民化之, 則其德亦歸於厚也.”

25) 『논어평』, 「팔일」 1장. “季氏要哭.”

26) 『논어평』, 「안연」 19장. “言外有要殺先從子始意.”

27) 『논어평』, 「팔일」 5장. “서글픈 마음이 드는구나!(凄然!)”; 『논어평』, 「위정」 7장. “내 사는 요즘 세상의 효자는 음식 봉양 잘 하는 이조차 없으니, 이 어찌 개탄스럽지 아니한가!(今之孝者, 并能養, 亦無之矣, 豈不可嘆!)”

그렇다고 이념적 지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논어평』을 관통하는 이념적 지향은 당대 이탁오 사상의 반영으로 바로 유교와 불교의 회통, 즉 유교적 현상에 대한 불교적 접근, 더 나아가 유교와 불교의 이념을 진리라는 대전제에 이르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동일시하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 3) 유불회통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두루 자기 생사의 근원을 궁구하여 성명의 종착점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벼슬을 버리며 뒤도 안 돌아보는 자가 있고, 가정을 버리면서 되돌아보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 자신의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굴어 먹을 것이 삼씨 한 톨 보리 한 알뿐이며 새가 정수리에 등지를 틀어도 모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명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오직 삼교의 큰 성인만은 이것을 아는 까닭에 평생의 힘을 다 기울여 이 일을 궁구하셨습니다.…오직 진실로 자신을 위해 성명을 탐구하는 자만이 묵묵한 가운데 저절로 그 일을 깨닫는 것이니, 이는 삼교의 성인이 받은 성명의 종지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 하겠습니까.<sup>28)</sup>

김혜경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글은 만력 29년(1601), 이탁오가 죽기 바로 전해에 쓰인 것이다.<sup>29)</sup> 당시 이탁오는 세상을 호도하고(惑世), 음란을 조장하였다(宣淫)는 유언비어로 인해 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특히 유학자로서 승려가 되었으며 선성(先聖)을 모독하는 저술을 한 것이 큰 빌미가 되었다. 이 편지는 자신의 지지자인 마경륜의 부친인 마시서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의 이러한 세평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변론서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탁오 만년의 정신적 지향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편지에서 보듯이 이탁오는 유불선 삼교의 가르침 자체를 절대시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문자화된 이념이라기보다는 자기 본

28) 李贄, 『續焚書』, 「答馬歷山」. “凡爲學皆爲窮究自己生死根因, 探討自家性命下落. 是故有棄官不顧者, 有棄家不顧者, 又有視其身若無有, 至一麻一麥, 鵲巢其頂而不知者, 無他故焉, 愛性命之極也. …唯三教大聖人知之, 故竭平生之力以窮之. …唯眞實爲己性命者默默自知之, 此三教聖人所以同爲性命之所宗也.” 번역은 김혜경(역), 『속분서』(한길사, 2007)에서 인용하였음.

29) 김혜경, 위의 책, 39쪽의 주1번을 참조.

성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이를 통한 생사의 근원에 대한 통찰이다. 그러다 보니 삼교의 이념은 자신이 설정한 진리를 체득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너무나 뚜렷한 목적 의식으로 인해 이 도구의 존엄성 내지 차별성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즉 유가적 이념이든 불가적 이념이든 진리에 다가가는 수단으로써만 기능한 것이다. 때문에 이탁오는 유학자라면 누구나 존엄시하는 『논어』의 내용을 해설할 때도, 불교의 용어나 이념을 통해 해석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논어평』에서 이탁오는 불교의 용어, 특히 선종의 언어를 원용하여 『논어』의 경문을 왕왕 해설하곤 하였다.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사람들의 장단점을 따져서 잘 비교하자, 공자가 “사(賜)야! 너는 벌써 현자가 되었느냐? 나는 남의 장단점을 따질 겨를이 없다”라고 한 대목이 논어에 나온다.<sup>30)</sup> 이 구절에 대하여 주자의 선배인 사랑좌(謝良佐)는 “성인이 사람을 책망할 때, 말씀은 박절하지 않으면서도 뜻만은 이미 지극함이 이와 같다”<sup>31)</sup>라고 하여, 제자의 단점을 온건하게 책망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공자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문에 대한 이탁오의 평은 자못 다르다. 이탁오는 이 경문이야말로 제자의 꼭 막힌 부분을 깨부수기 위해 스승인 공자가 베풀어준 내뿜은 고함의 가르침이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평어를 달기를, ‘홀륭하신 방망이이자 고함’<sup>32)</sup>이라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방망이와 고함(棒喝)’은 선종에서 고승이 제자들을 깨치게 하기 위하여 상용하는 수단이다. 이처럼 이탁오는 기존의 주석과 다르게 이 경문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이 경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선종의 용어를 차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밖에도 『논어』의 경문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물속에 뜬 달이요, 거울 속에 비친 꽃(水月鏡花),<sup>33)</sup> 대자대비<sup>34)</sup>와 같은 불교 용어를 수시로 차용하였다.

이처럼 이탁오는 불교 용어를 차용하여 『논어』를 해설하였을 뿐 아니라, 아예 『논어』의 문답이나 내용 전체를 선의 언어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한때 공

30) 『논어』, 「현문」 31장. “子貢方人. 子曰: ‘賜也賢乎哉? 夫我則不暇.’”

31) 『논어집주』, 「현문」 31장의 주자주. “謝氏曰: ‘聖人責人, 辭不迫切而意已獨至如此.’”

32) 『논어평』, 「현문」 31장. “홀륭하신 방망이이자 고함(好棒喝).”

33) 『논어평』, 「양화」 11장. “의미는 말 밖에 있다. 물속에 뜬 달이요, 거울 속에 비친 꽃이로다. 절묘한 문자로다(意在言外. 水月鏡花, 是絕妙文字).”

34) 『논어평』, 「위령공」 29장. “넓으신 포용력, 대자대비하신 마음(放條寬路, 大慈大悲).”

자께서 자공에게 “너와 안회는 누가 나으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공이 “제가 어떻게 감히 안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라고 대답하니, 공자께서 “못하도다! 나는 너가 그만 못함을 인정하노라”라고 한 적이 있었다.<sup>35)</sup> 대체로 이 경문은 안회의 높은 경지를 칭찬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자가 자공을 인정한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되어 왔다.<sup>36)</sup> 그런데 이탁오는 이러한 전통적 이해를 한참 벗어나서 공자의 마지막 말씀을 위대한 선어(禪語)로 파악하였다.<sup>37)</sup> 선사들이 제자들의 업장(業障)의 껍질을 깨뜨려 줄 때 벽력같은 한소리로 탈피시켜 주듯, 공자의 ‘못하도다’라는 한마디는 이탁오의 심성에 바로 이러한 선사의 벽력음과 동일하게 들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크나 큰 선의 기미가 서려있다고 평하였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이탁오의 『논어』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이전에도 드물었고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심지어 그는 『논어』의 어떤 경문의 내용 전체를 선어로 평하고서는 이를 실제적인 일로 여겨 주석을 단 기존의 경학자들을 가리켜 바보라고까지 하였다.<sup>38)</sup> 이처럼 『논어』의 내용의 일부를 선어로 보았기에 공자의 형상이나 심상을 묘사할 때, 종종 선사의 그것과 일치시키곤 하였다. 예를 들어 공자는 잠을 잘 때 시신처럼 사지를 뻗지 않았고, 평상시 기거하면서 얼굴을 꾸미지 않았다고 하는데,<sup>39)</sup> 이를 두고 이탁오는 공자의 이 형상은 바로 선사의 좌선과 동일하다고 하였다.<sup>40)</sup> 또 한 예로 『논어』, 「자한」 제7장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我叩其兩端而竭焉”라는 경문의 전통적 해석은,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비루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되, 그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묻는 내용의 양단

35) 『논어』, 「공야장」 8장.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 吾與女, 弗如也.’”

36) 『논어집주』, 「공야장」 8장의 주자주. “子貢平日, 以己方回, 見其不可企及. 故喻之如此, 夫子以其自知之明, 而又不難於自屈. 故既然之, 又重許之.”

37) 『논어평』, 「공야장」 8장. “공자께서 자공을 훈도하는 여기, 바로 선(禪)의 기미(機微)가 서렸도다 (夫子造就子貢處, 大有禪機.)”

38) 『논어평』, 「향당」 17장. “분명히 일종의 선어(禪語)이다. 만약 이 구절을 실제적인 일로 여긴다면, 참으로 바보이다(分明一則禪語. 若認作實事, 便是呆子.)”

39) 『논어』, 「향당」 15장. “寢不尸, 居不容.”

40) 『논어평』, 「향당」 15장. “방비:좌선(旁批:打坐).”

(兩端, 양쪽)을 다 말해준다”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空空如也’는 머리가 텅 빈 무식한 질문자의 상태를 형용하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탁오는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보았다. 우선 이 경문은 공자가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진솔한 이야기로서, 당신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말씀이라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단서를 ‘공공여야(空空如也)’에서 찾았는데, 이탁오는 ‘공공여야’를 질문자의 무식한 형상으로 보는 종래의 견해를 무시하고, 이를 공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가 공의 상태에 다다랐음을 표현한 언어로 보았다.<sup>41)</sup> 이렇게 보면 이 경문은 “나에게는 고착화된 지식이 있는가? 이러한 지식은 없다. 좀 못난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의 마음은 공의 상태로 텅 비어 있기에 그가 한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십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잘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되어, 흡사 선사의 마음자리를 표현한 선서(禪書)의 한 대목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흘러가는 시냇물의 흐름 속에서 생사를 깨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자세를 읽어내는 것<sup>42)</sup> 등등, 『논어평』 곳곳에서 유교와 불교의 만남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송대에서 발흥하여 명대 양명학파의 일부 학인들에게서 정점을 이룬 유불회통의 사조는 이탁오의 시대에 이르러 그 지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였다. 이를 행동과 저술을 통해 실천한 대표적 인물이 이탁오였다. 그는 실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인과록(因果錄)』 같은 불교 저술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분서』에 들어있는 여러 글을 통해서도 유불회통의 정신을 유감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그런데 『논어평』(『사서평』)은 이탁오의 이러한 사유가 유가 경전의 해설을 통해 실증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왜냐 하면 이탁오 이전에는 유불회통의 사유를 이처럼 직접적으로 경전해석을 통해 표현한 경우가 거의

41) 『논어평』, 「자한」 7장. “이 경문은 공자의 진솔한 이야기로서, 자신의 마음자리[心體]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다. ○마음이 텅 비어있다[空空如也]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를 말씀하신 것이다(這是孔子眞話, 亦把自家心體和盤托出矣. ○空空如也, 正說自家心體.)”

42) 『논어평』, 「자한」 16장. “또한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노력함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가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과 의미가 동일하다. ○**밤낮으로 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곧 생사를 깨치지 못할 것이다**(亦勸人不捨也. 與道家流水不腐之語同. ○舍晝夜, 便了不得生死.)”

43) 한편 미조꾸지 유조는 이탁오가 유불의 경계조차 넘어섰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도에 대한 강렬한 갈망으로 초세간적이라고도 할 원대한 식견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갔다. 더욱이 유불의 경계조차 떨쳐버리고 너무나도 리얼하게 ‘眞空’을 투시하였다.” 미조꾸지 유조, 앞의 책, 46쪽.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탁오는 탈성화와 감성적 비평, 그리고 유불회통에 근거한 경전해석이 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논어평』을 저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원활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주석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주석 형식을 창출하였다.

## 2. 새로운 주석 형식

중국의 경학사를 송학과 청학의 양대산맥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서 보았다시피 청대에 이미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송학과 청학의 성격규정에 대하여 벤저민 엘먼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에서 송학을 대화체(對話體), 청학을 차기체(筭記體)로 규정하였다.<sup>44)</sup> 아마도 송대에 발달한 어록체와 청학의 고증적 집적물로서의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명명한 것 같다. 그러나 주자를 중심으로 한 송대 경학 저술의 특징을 대화체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송학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록의 발달로 인한 대화체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학저술은 새로운 견해(新義)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의론체(議論體)라 명명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탁오의 『논어평』은 이 양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경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으며, 고증적 사실들을 집적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 경문해석을 가하는 의론체 송학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다.<sup>45)</sup> 그저 경문에 대한 자신의 감성적 이해가 생겨나면 이를 금기 없이 툭툭 내뱉는다. 당연히 풍부한 감성이 묻어 나오고 경문과 인물들에 대한 비평적 논조가 강하다. 특히 미비(眉批)와 방비(旁批) 같은 문장 안에서의 곁다리 주석을 덧붙여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하여 필자는 이러한 주석형식을 감성적 비평이 주도

44) 벤저민 엘먼(자)양휘웅(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예문서원, 2004), 353쪽 참조.

45) 『논어평』, 「안연」 10장. “이 경문을 살펴보면, 알맞지 않은 구절이 무엇이 있는가. 『시경』의 구절은 공자가 자신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니, 어찌 글자마다 원시(原詩)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풀이할 것이 있겠는가? **송유(宋儒)들이 경전을 해석할 때, 그 큰 단점은 너무 명백하게 풀이하 고자 하는데 있다**(就在此處, 有何不好. 引來證其意耳, 何必字字明白? 宋儒解書, 病在太明白).”

를 이룬다는 점에서 일단 비평체(批評體)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 내용적 특징은 앞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그 형식적 특징은 더욱 이러한 명칭에 부합하는 듯 하다.

### 1) 비평체 주석

이탁오는 『논어평』에서 경문에 대한 자기 감성의 직접적 접촉을 표현하기 위해 서 일체의 설명을 생략하고 간명 직절한 평어를 사용하여 주석을 달았다. 그 비평의 형식을 보면, 1자평, 2자평, 3자평, 4자평, 5자평으로 비평하였으며, 문장 사이 사이에 방비와 미비를 넣어서 비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논어』 「술이」편을 보면 한 번은 공자가 병이 위중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자로가 천지신명께 빌기를 공자에게 청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거절하면서 이런 기도는 내가 평소에 계속하였으니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sup>46)</sup> 이 경문에 대한 기존의 주석은 자로가 천지신명에게 빌고자 한 행동이 왜 사리에 맞지 않는가? 공자가 평소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탁오는 이 경문에 주석을 달면서 ‘오묘하도다(妙)’라는 한 글자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1자평의 평어와 2자평,<sup>47)</sup> 3자평,<sup>48)</sup> 4자평,<sup>49)</sup> 5자평,<sup>50)</sup> 그리고 경문내의 평어인 미비와 방비 등이 있는데, 한결같이 촌철살인의 평어로서 경문에 대한 감회를 표현해 내었다.

이러한 비평체의 주석 형태는 송학의 의론체, 청학의 차기체와 대별되는 하나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탁오와 그의 후학들의 경전 주석에 두드러져 보이는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그들이 견지했던 문예의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46) 『논어』, 「술이」 34장.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 ‘有諸?’ 子路對曰: ‘有之. 誄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丘之禱久矣.’”

47) 『논어평』, 「술이」 15장. “참으로 안락한 삶(受用).”

48) 『논어평』, 「태백」 16장. “참으로 알아주기 어려울 것이로다(眞難知).”

49) 『논어평』, 「술이」 21장. “은 세상 곳곳이 나의 선생(遍地先生).”

50) 『논어평』, 「태백」 16장. “순임금과 우임금의 정신세계를 잘 묘사하였도다(傳舜禹之神).”



## 2) 문예학과 경전주석학의 결합

이탁오가 명대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자들이 언급하였다. 특히 사상사적 관점에서 이탁오의 위상을 논하면서 그의 대사상가적 면모에 대하여 많이 논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는 이탁오는 대사상가 이전에 위대한 문인으로서 더욱 높은 위상을 지닌다고 하였다.<sup>51)</sup> 명말 주요 문학사조였던 공안파에 결정적 역할을 미친 인물로 이탁오를 꼽고 있기에<sup>52)</sup> 이 평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탁오 문예학의 특징은 그가 남긴 시문과 여러 비평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탁오는 경서, 제자서, 역사서, 문집,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서적에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짧은 문구에 담아 비평을 가한 비평서를 다량으로 창작하였다. 이는 문예비평과 여타 장르를 결합시킨 것으로, 그의 경전주석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평어와 미비, 방비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탁오의 문예학과 경학의 결합을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이 『논어평』에 보인다. 그것은 바로 문체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다.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논어』, 「양화」 18장

공자 : “나는 자주색이 빨간색을 침탈함을 미워하며, 정나라 음악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힘을 미워하며, 말 잘하는 입을 가진 소인이 나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sup>53)</sup>

『논어평』, 「양화」 18장

문장의 격조가 매우 오묘하도다! 다만 두 개의 ‘야(也)’자를 쓰고서 하나의 ‘자(者)’자를 드러내었으니, 주객(主客)이 선명하게 드러났도다. 후인들이 어찌 이러한 글쓰기를 할 수 있으리오.<sup>54)</sup>

이 경문에 대한 종래의 주석을 보면 대체로 경문의 내용 설명에 치중하며 문체

51) 陳平原,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中國: 三聯書店, 2004), 26쪽.

5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소명출판, 2007)의 제2장 참조.

53) 『논어』, 「양화」 18장. “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54) 『논어평』, 「양화」 18장. “文格甚妙! 只用二‘也’字叫一‘者’字, 主客了然. 後人如何有此隨筆?”

에 관하여 언급한 주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탁오는 『논어평』에서 오로지 그 문체만을 문제삼았다. 『논어평』에서 ‘아(也)’자와 ‘자(者)’의 쓰임을 통해 주객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자 말의 비중이 세 단락 중 마지막 단락에 실려 있다는 의미이다. 특이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논리적 설명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데 비해, 이탁오는 글자의 쓰임이나 문체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문장은 오늘날의 문장가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성인의 글솜씨만이 가능한 고매한 경지라고 하였다.<sup>55)</sup> 비록 성인의 글솜씨를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문예학과 경전주석학을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탈성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탁오는 공자를 신성시하거나 경문을 절대시하지 않았기에 경문을 훌륭한 문장의 전범으로 파악한 것이다. 때문에 그가 자신의 문예비평적 관점을 모든 장르의 서적에 적용하여 저술을 진행해 나갈 때, 경전도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었다. 동아시아 경학사에서 단편적으로 경전의 문장에 관심을 기울인 주석가가 있었지만, 이탁오처럼 경문 전체를 문장의 훌륭한 전범으로 인식하고서 그 문체에 관심을 집중한 경학자는 없었다. 이 또한 이탁오의 경학이 성취한 매우 독특한 일면이라 할 것이다.

### III. 『논어평』의 사상사적 위상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논어평』은 경학사에서 매우 독특하고 의미있는 저술로서 독자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독자적 위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논어평』의 이전과 이후의 논어학을 조망해 보는 데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중국의 경학사의 두 축은 한학적 고증학과 송학적 의리학이라 하였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저술된 논어주석서는 정현의 『논어정씨주(論語鄭氏注)』로써 문자훈고를 통한 훈고학적 경전 주석의 방식에 충실하였다. 때문에 이 주석서는 이후 훈고

55) 『논어평』, 「현문」 8장.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愛之]’고 하였으며, 자신의 마음 가짐이 충심이기 때문에 ‘충심이라면[忠焉]’이라고 하였다. 한 글자의 다름으로 인해 무한한 변화가 생겨났으니, 성인의 붓끝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는가(愛子, 故曰‘愛之’. 自忠, 故曰‘忠焉’. 一字之異, 便有無限變化. 非聖筆安得有此!)”

학을 위주로 하는 경학가들의 표준이 되었다.<sup>56)</sup> 그런데 정현 이후, 이탁오 이전까지 중요한 논어 주석서는 거의 대부분 훈고보다는 의리학을 중심으로 삼았다. 몇 종의 중요한 『논어』 주석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현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논어주석서는 하안(何晏, 193~249)의 『논어집해(論語集解)』와 황간(皇侃, 488~545)의 『논어집해의소(論語集解義疏)』이다. 신주(新注)인 주자의 『논어집주』에 대해 고주(古注)로 불리는 『논어집해』의 특징은 유가의 경전을 해설할 때 노장사상의 주요개념을 원용하는 현학적(玄學的) 경학을 들 수 있다.<sup>57)</sup> 그리고 『논어집해의소』의 경학적 특징으로는 하안의 『논어집해』에 비해 현학적 경향이 더욱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sup>58)</sup> 이처럼 정현 이후 저술된 논어 주석서는 노장이나 불학으로 유가의 경전을 해석하려는 의리학적 관점이 매우 뚜렷하였다.

한편 당대(唐代)의 한유(韓愈, 768~824)와 그의 제자인 이고(李翱, 772~841)의 공저인 『논어필해(論語筆解)』도 또한 의리 위주의 주석서인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이념인 본성과 천도의 일리(一理)를 주장하는 내용이 그 해석에 등장하며, 이는 후일 송유들의 『논어』 주석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sup>59)</sup> 이후 송대에 들어와서는 형명(邢昺, 932~1011)의 『논어주소(論語注疏)』와 진상도(陳祥道, 1053~1093)의 『논어전해(論語全解)』가 매우 영향력을 지녔었는데, 이 두 주석서는 공히 『논어』를 해석함에 도가의 설에 의지하는 현학적 성향을 강하게 지녔다.<sup>60)</sup>

그런데 이 뒤를 이어서 논어주석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논어주석서가 남송 연간에 저술되었다. 바로 주희의 『논어집주』이다.<sup>61)</sup> 주희의 『논어집주』는 훈고도 매우 치밀하지만 그의 성리학적 이념이 잘 투영된 주석서로 더 가치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주자학이 정치적·학문적 권위를 누리

56) 嚴正, 「鄭玄經學思想述評」, 『經學今詮續編』(中國: 遼寧教育出版社, 2001), 428쪽.

57) 張文修, 「正時時期經學的玄學化」, 『經學今詮初編』(中國: 遼寧教育出版社, 2000), 452~454쪽.

58) 孫述圻, 「論皇侃的『論語義疏』」,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上冊)』(臺灣: 文史哲出版社, 民國82年), 612쪽.

59) 이기윤, 「『論語筆解』의 解釋學的 理解」,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석사논문(1996).

60) 특히 陳祥道の 『논어전해』에는 『노자』에 의거하여 논어를 해석한 곳이 20여 항목, 『장자』에 의거하여 논어를 해석한 곳이 30여 항목이나 된다.

61) 이 사이에 선학적 관점에서 논어의 중요 주제를 이해하고 이를 한시로 표현한 張九成의 『論語百篇詩』와 도가와 불가의 이론으로 『논어』의 내용을 증명해 나간 謝良佐의 『論語解』가 있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게 되었을 때 이 책은 매우 존중받았다.

이상 한대의 정현에서 남송대의 주자에 이르기까지의 논어주석사를 일별해 보았다. 그 결과 정현의 주석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논어주석서는 주로 도가와 성리학 등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의리학적 경학이 논어주석사의 대세였던 것이다. 그리고 주희의 『논어집주』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논어주석서들의 영향이 현저히 감소한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송대 이후 원명대는 주희의 『논어집주』가 거의 성경의 위치를 누릴 정도로 존송받았다. 때문에 이후에 주자학파의 논어주석서는 새로운 견해를 드러내기 보다는 『논어집주』의 의미를 부연설명하는 주자의 주석에 대한 해설집, 즉 『논어집주』의 소(疏)를 저술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명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영락제 때 편집된 『논어집주대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명경학사의 이러한 양상은 주자 주석 일존주의의 특성을 강화시킨 탓에 경학의 비정상적 발전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후대 경학사가들로부터 경학의 쇠퇴시대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논어평』은 바로 경학의 쇠퇴시대라고 평가받는 명말에 출현한 저작이다. 그러면 이탁오의 논어학은 이러한 경학사의 흐름에 어디쯤 위치하며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앞서 살펴본 이탁오 논어학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탁오 논어학의 중요특징이 유불회통이기에, 이는 고증학보다는 의리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체에 대한 집요한 관심, 비평적 주석달기 등은 또한 이전의 주석서에서 보지 못한 점이다.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의리체, 고증체에 대비되는 비평체 경학이라 명명해 보기도 하였다. 즉 이탁오의 논어학은 종래의 의리적 경학의 맥을 이으면서도 창신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러한 창신의 면모를 갖춘 이탁오의 논어학이 어떠한 위상을 지니려면, 평지돌출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이탁오의 유불회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평체 논어학이 과연 흐름을 창출할 만큼 경학사에서 영향력을 지녔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탁오 이후 그의 영향 하에 있거나, 적어도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는 논어주석서들이 대량으로 저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대표적 저술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62)</sup>

## 이지(李贄 1527~1602), 『논어평(論語評)』(『四書評』)

- ① 요순목(姚舜牧 1543~1623), 『논어의문(論語疑問)』(『四書疑問』).
- ② 녹선계(鹿善繼 1575~1636), 『논어설약(論語說約)』(『四書說約』).
- ③ 주종건(周宗建 1582~1626), 『논어상(論語商)』.
- ④ 풍몽룡(馮夢龍 1574~1645), 『논어지월(論語指月)』(『四書指月』).
- ⑤ 장대(張岱 1597~1865), 『논어우(論語遇)』(『四書遇』).
- ⑥ 지옥(知旭 1599~1655), 『논어점정(論語點晴)』.
- ⑦ 내사행(來斯行 1607년 진사), 『논어송(論語頌)』, 『논어소참(論語小參)』(『四書小參』).
- ⑧ 만상열(萬尙烈 1161년 자서), 『논어측(論語測)』(『四書測』).
- ⑨ 구신(寇慎 1616년 진사), 『논어작언(論語酌言)』(『四書酌言』).
- ⑩ 왕점반(汪漸磐), 『논어종인(論語宗印)』(『四書宗印』).
- ⑪ 장명헌(張明憲), 『논어참(論語參)』(『四書參』).
- ⑫ 황헌신(黃獻臣), 『논어벽단(論語闢旦)』(『四書闢旦』).

명말에 지어진 이 논어주석서들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불회통의 사유로써 『논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주석서들 중 특히 중요한 저술로 장대의 『논어우』와 지옥의 『논어점정』을 들 수 있다. 장대의 『논어우』는 유가에서 지옥의 『논어점정』은 불가에서 이탁오 논어학의 내용과 형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승한 흔적이 매우 뚜렷한 주석서이기 때문이다. 이 두 주석서의 공통된 특징으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이탁오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비평체 형식, 둘째 경문 문체에 대한 관심, 셋째 유불회통, 넷째 이탁오 『논어평』의 다수 인용과 부연설명 등이다. 이 중에서 유불회통의 경우, 이탁오 『논어평』에 보이는 유불회통의 형식을 더욱 밀고 나가 유가적 이념을 불가적 이념으로 치환하고자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먼저 장대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장대는 선종의 기풍을 강하게 지녔다고 평가받는 왕기(王畿, 1498~1583)의 양명학을 가학으로 계승하였으며, 명이 망하자 산속으로 은거하여 평생 저술을 일삼

62) 그 상세한 목록은 陳昇輝, 『晚明論語學之儒佛會通思想研究』, 淡江大學 碩士論文(2002)의 부록 참조

은 학자이자 지사였다. 그가 지은 『논어우』는 이탁오의 비평체 경학을 계승하여 촌철살인의 평어들로 점철되어 있다.<sup>63)</sup> 그리고 유불회통의 사조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 유불의 이념을 동일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 예를 들어보자. 『논어』, 「자장」편에 속손무속이라는 이가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자공이 그의 스승인 중니(仲尼)보다 현명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자공이 속손무속의 단견을 나무라는 대목이 있다.<sup>64)</sup> 이 경문에 대하여 장대는 평하기를, “공자는 부처, 자공은 보살이다. 부처는 청정무위하며 보살은 신통광대하다. 외도들은 그 외면으로 드러난 용상과 광명만을 보기 때문에 보살이 부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속손의 견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sup>65)</sup>라고 하여, 아예 공자를 청정무위한 부처, 자공을 신통광대한 보살로 동일시하였다. 더 나아가 공자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무(毋意, 毋必, 毋固, 毋我)<sup>66)</sup>는 부처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과 동일하다고 파악하였다.<sup>67)</sup> 이쯤되면 공자와 부처의 경계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명말 사대고승의 한 사람이었던 지옥이 지은 『논어점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옥은 『논어점정』에서 공자의 마음을 불보살의 마음이라 하였고,<sup>68)</sup> 공자의 인격의 성장단계인 지학에서 중심까지를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에 비견하기도 하였다.<sup>69)</sup> 특히 지옥은 이탁오의 견해를 『논어점정』에서

63) 보다 자세한 내용은 朱宏達, 「張岳『四書遇』의發現及其價值」,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下冊)』(臺灣: 文史哲出版社, 民國82年) 참조.

64) 『논어』, 「자장」 23장. “叔孫武叔語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 子服景伯以告子貢.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 得其門者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

65) 『論語遇』, 「자장」 23장. “孔子是佛, 子貢是菩薩, 佛有清淨無爲, 而菩薩則神通廣大. 外道見其龍象光明, 未免認是菩薩勝佛. 叔孫之見亦是如此.”

66) 『논어』, 「자한」 4장. “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67) 『논어우』, 「자한」 4장. 유원성 : “공자와 부처의 말은 서로 표리관계를 이룬다. 공자의 ‘毋意’, ‘毋必’, ‘毋固’, ‘毋我’와 부처의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은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듯하다(劉元城曰: “孔子佛氏之言, 相爲表裏. 孔子言毋意, 毋必, 毋固, 毋我, 而佛言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其言若出一人.”)

68) 『論語點晴』, 「위령공」 38장. “불보살의 마음이다. 만약 차별을 둔다면, 곧 가르침이 없는 것이다(佛菩薩之心也. 若使有類, 便無教矣.)”

69) 『논어점정』, 「위정」 4장. “‘배움’이란 한 글자, 관통하고 있도다.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생각, 생각 속진을 등지고 깨달음에 합치되고자 함을 ‘지(志)’라 하고, 깨달아서 흔들리는 마음에 의해 동요되지 않음을 ‘입(立)’이라 하며, 깨달아서 미세한 의심 덩어리를 깨뜨림을 ‘불혹(不惑)’이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의미를 불교적으로 풀어내기도 하였다.<sup>70)</sup> 일종의 이탁오 논어학의 疏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명말의 이탁오의 위상은 그의 책에 대한 다양한 상업적 출판과 그의 사상과 언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층의 확보에서 그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글은 당시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고, 당시 가장 명망 있던 문장가이자 출판가였던 풍몽룡(1574~1645, 위에서 언급한 『논어지월』의 저자이다)은 “선생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생이 읽은 것이 아니면 읽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였다.<sup>71)</sup> 위의 예에서 명말청초에 걸쳐 『논어평』의 영향을 받은 주석서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것은 당시 이러한 학술계의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논어우』와 『논어점정』에서 보았듯이 유불회통의 이념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이 시기 논어주석서들은 이탁오의 논어학에서 영향받은 바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리고 이탁오를 정점으로 하여 그들만의 연계에 의한 집단성과 독특성이 선명하게 보인다. 때문에 이를 하나의 새로운 경학사조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전시대와 뚜렷이 구별되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계승한 학자군과 저술이 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면 심성과 감성의 중시, 문예학의 발흥, 유불회통의 추구 등등 당시 사상사와 문학사의 중요 양상을 이탁오를 정점으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그들의 경학저술 속에 정확하게 반영해 내었다. 특히 불가(선종)의 이론으로 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매우 두드러졌기에, “명나라 학자들의 경전을 해설하는 방식은 선사들이 공안을 제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sup>72)</sup>고 할 정도로 독특한 일면을 개척한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탁오를 정점으로 하는 논어학은 그 차별적 특징과 후대의

---

한다. 깨달아서 진망(眞妄)의 관문을 투시함을 ‘지천명(知天命)’이라 하며, 깨달아서 육근(六根)이 모두 여래장(如來藏)이 됨을 ‘이순(耳順)’이라 하며, 깨달아서 육식(六識)이 모두 여래장이 됨을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재(自在)한 경지이다(只一學字到底, 學者, 覺也. 念念背塵合覺, 謂之志, 覺不被迷情所動, 謂之立, 覺能破微細疑網, 謂之不惑, 覺能透真妄關頭, 謂之知天命, 覺六根皆如來藏, 謂之耳順, 覺六識皆如來藏, 謂之從心所欲不踰矩, 此是得心自在.)”

70) 금장태, 「지옥의 『논어점정』과 불교적 『논어』해석」, 『불교의 유교경전 해석』(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참조.

71) 오오키 야스시(저)/노경희(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소명출판, 2004), 146쪽, 196~197쪽 참조.

72) 馬浮, 『四書遇』題記, “明人說經, 大似禪家學公案.”

영향의 측면에서 보면 신경학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실로 의론체(송학, 의리)와 차기체(한학, 청학, 고증)이라는 두 축에다 비평체(명학)가 더해 저서 중국의 경학사를 더욱 의미있고도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가 사상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불회통을 근간으로 하는 晩明의 새로운 지식형태를 정확하게 반영, 또는 주도한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명말의 신경학은 왜 경학사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여길 정도로 홀시를 받았는가? 의론체의 송학과 차기체가 청학이 긴 세월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비해, 비평체의 명학은 명말 청초에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학적 현상이 그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소멸된 것은 바로 비평체의 명대 경학이 처한 내외외환에서 비롯되었다.

양명학은 태주학과를 거치면서 불가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로 인해 세상에 양명학의 이름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태주학과에서 이탁오에 이르는 동안 지나친 선으로의 경도는 사상계 내부의 비판을 초래하였고, 이들에게는 양명좌파 또는 광선파(狂禪派)라는 오명을 얻게 하였다.<sup>73)</sup> 황중희가 『명유학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로 인해 양명학이 천하를 풍미하였고 이들 때문에 양명학이 쇠미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74)</sup> 이에 만명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심성학을 버리고 문헌학으로 자신의 학문영역을 옮겨갔다.<sup>75)</sup>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말에 유행했던 이러한 사조의 학문이 도덕적 쇠약과 사상적 혼돈을 가져와 만주족에 의한 왕조의 붕괴와 몰락을 가속시켰다고 비난한 것과<sup>76)</sup> 청대에 들어와서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문헌학을 지원한 것도 명대 신경학의 쇠락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명대의 신경학은 이렇게 내적 비판과 외적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서 스러져 갔다. 그래도 그 여맥은 실낱같이 이어져서 조선의 허균이나 정약용 등에 의하여

73) 稽文甫, 『晩明思想史論』(臺北: 東方出版社, 1996), 58쪽. “明代思想解放的潮流, 從白沙發端, 及陽明而大盛, 到狂禪派而發展到極端。於是乎引起各方面的反對, 有的專攻擊狂禪派或陽明左派。”

74) 黃宗羲, 『明儒學案』(臺北: 里仁書局, 1987), 703쪽. “陽明先生之學, 有泰州, 龍溪而風行天下, 亦因泰州, 龍溪而漸失其傳。泰州, 龍溪時時不滿其師說, 益啓瞿曇之秘而歸之師, 蓋躋陽明而爲禪矣。”

75) 錢穆, 『中國學術思想史論叢七』(臺北: 蘭臺出版社, 2000), 324~325쪽. “我們若稱宋明儒心性學, 則晩明儒實已自心性學轉向到文獻學。…若照近代習用語說之, 則可謂宋明是主觀者, 而晩明以下則轉向客觀。”

76) 벤저민 엘먼(저)/양휘웅(역), 앞의 책, 174쪽.



수용되기도 했다. 마치 거인이 쓰러지듯 명대의 신경학은 단기간에 사라졌지만, 이처럼 시공을 달리하여 조선에서 살아나기도 하였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다음 탐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論語』; 『論語百篇詩』; 『論語解』; 『論語集注』; 『中庸章句』; 『論語評』; 『焚書』; 『論語遇』; 『論語點睛』  
『明儒學案』; 『四庫全書總目提要』.
- 『續焚書』. 김혜경 역주본. 서울: 한길사, 2007.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7.
- 금장태, 『불교의 유교경전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미조구찌 유조(저)/김용천(역), 『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 서울: 동과서, 1999.
- 밴저민 엘먼(저)/양휘웅(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4.
- 余英時, 「章學誠의 六經皆史說」.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하)』. 서울: 창비, 1985.
- 오오키 야스시(저)/노경희(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4.
- 이기윤, 「『論語筆解』의 解釋學的 理解」.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석사논문, 1996.
- 本田成之, 『支那經學史論』. 日本: 吉川弘文館, 1927.
- 松川健二, 『論語の思想史』. 日本: 汲古書店, 1994.
- 安井小太郎·諸橋轍次, 『經學史』. 日本: 松雲堂書店, 1933.
- 佐野公治, 『四書學史の研究』. 日本: 創文社, 1988.
- 馬宗霍, 『中國經學史』.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61年.
- 范文瀾, 『經學講演錄』. 中國: 社會科學出版社, 1979.
- 孫述圻, 「論皇侃的『論語義疏』」.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上冊)』. 臺灣: 文史哲出版社, 民國82年.
- 嚴正, 「鄭玄經學思想述評」. 『經學今詮續編』. 中國: 遼寧教育出版社, 2001.
- 吳雁南, 『中國經學史』. 中國: 福建人民出版社, 2000.
- 劉師培, 『經學教科書』. 寧武南氏校版影印本.
- 章權才, 『宋明經學史』. 中國: 廣東人民出版社, 1999.

張文修, 「正時時期經學的玄學化」. 『經學今詮初編』. 中國: 遼寧教育出版社, 2000.

錢穆, 『中國學術思想史論叢七』. 臺灣: 蘭臺出版社, 2000.

朱宏達, 「張岱『四書遇』的發現及其價值」.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下冊)』. 臺灣: 文史哲出版社, 民國82年.

陳昇輝, 「晚明論語學之儒佛會通思想研究」. 臺灣: 淡江大學 碩士論文, 2002.

陳平原,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 中國: 三聯書店, 2004.

皮錫瑞, 『經學歷史』. 臺灣: 藝文印書館, 民國63年.

許道勛, 『中國經學史』. 中國: 人民出版社, 2006.

嵇文甫, 『晚明思想史論』. 臺灣: 東方出版社, 1996.

### 국문 요약

유가사상사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경학이 출현하곤 하였다. 명대에 등장한 양명학에도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경학이 출현하였는데, 그 역할을 수행한 중심 인물이 이탁오이다.

이탁오는 『논어평』이라는 경전주석서에서 성인과 성경에 씌어져 있던 신성함을 벗겨 내었으며, 유교와 불교의 이념은 상통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짧은 평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였으며, 경문의 문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탁오의 논어학에 보이는 탈신성화, 유불의 회통, 짧은 평어의 사용, 문체에 대한 관심 등은 이전의 경학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면모이다. 한편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탁오의 논어학은 양명학의 사상적 특징이 경학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명말 경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 투고일 : 2008. 10. 10.      ● 수정일 : 2008. 12. 8      ● 게재확정일 : 2008. 12. 10.
- 주제어(keyword) : 이탁오(Li, Zhuo-Wu), 『논어평』(*Noneopyung*), 탈신성화(*De-sanctification*), 유불의 회통(*interconnectedness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명말 경학(*Gyeonghak in the late Ming dynasty*).